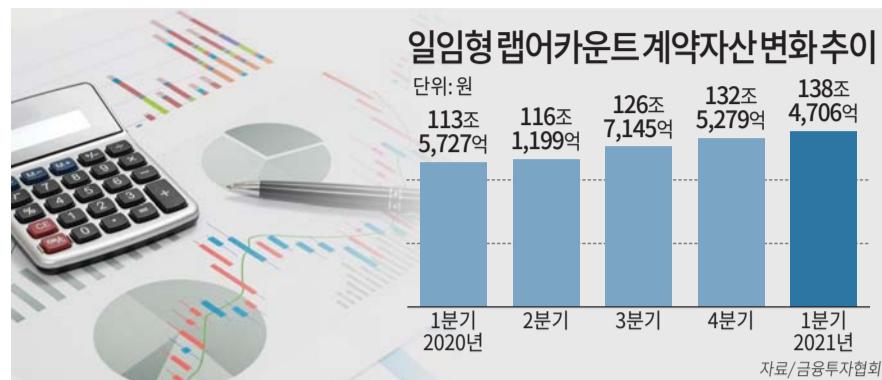


증시 불확실성에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랩어카운트' 주목

올 1분기 일임형 랩 계약 역대최고 가입금액 등 문턱 낮아져 수요 증가 원금 보장·예금자 보호 안돼 유의

국내 증시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자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종합 자산관리서비스인 '랩어카운트(WrapAccount)'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로보어드바이저를 기반으로 하는 일임형 랩어카운트가 많이 생겨나는 추세다.

랩어카운트는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 투자 자문 등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자산관리 서비스 상품이다. 랩어카운트는 크게 자문형과 일임형으로 나뉜다. 자문형의 경우 금융자산관리사가 투자에 대한 조언과 자문의 역할만 하는 반면, 일임형의 경우 고객이 맡긴 자산을 증권사가 알아서 운용한다.



◆일임형 랩어카운트, 올해 6조 넘게 유입돼

특히 일임형 랩어카운트의 경우 사모펀드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으며 그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랩어카운트는 사모펀드와 달리 고객이 자산 운용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운용지시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 가입금액도 3000만원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일임형 랩어카운트 계약 건

수는 201만3466건, 가입 고객수는 182만5170명, 계약자산은 138조4706억원으로 집계됐다. 모두 역대 최고치다.

특히 일임형 랩어카운트 계약자산의 경우 ▲2020년 1분기 113조5727억원 ▲2020년 2분기 116조1199억원 ▲2020년 3분기 126조7145억원 ▲2020년 4분기 132조 5279억원 ▲2021년 1분기 138조 4706억원 등의 순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6조원이 넘는 금액이 유입됐다.

지난 2003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일

임형 랩어카운트는 2016년 9월 처음으로 계약자산 100조원을 넘겼다. 이후 3년간 110조원대를 오르내리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며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계약자산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AI가 관리…자산관리서비스 문턱 낮아져

특히 로보어드바이저를 기반으로 하는 일임형 랩어카운트의 상품 경쟁이 치열해졌다.

로보어드바이저란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통해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준다. 1년 6개월간의 코스콤의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해야만 자산 관리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변동성이 커진 장세에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카움증권 NH투자증권, DB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등이 로보어드바이저를 기반으로 하는 일임형 랩어카운트 상품을 출시한 상태다.

특히 카움증권의 경우 지난 5월 자산 배분형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키우고(키우Go)'를 출시했다. 이를 위해 카움증권은 과거 3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170만여 건의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해당 모델을 설계하고 테스트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로보어드바이저는 인건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다. 고액자산의 영역이던 자산 관리서비스 문턱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많이 낮아졌다"며 "(로보어드바이저를 기반으로 한 랩어카운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 랩어카운트의 경우 원금 보장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투자 판단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포레나 부산덕천' 대규모 브랜드 타운 형성

한화건설

1~3차 1860여 가구 대규모 단지
1차 분양성공에 2~3차 사업 속도



'한화 포레나 부산덕천 2차' 조감도. /한화건설

한화건설이 부산에서 '시리즈 아파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부산지하철 3호선 숙등역 역세권에 공급 중인 '포레나 부산덕천'이 1~3차에 걸쳐 1860여 가구의 대규모 브랜드 단지로 탈바꿈되고 있어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숙등역 인근 3개 구역이 연접한 덕천동 재건축정비사업 가운데 지난해 2-1구역이 처음으로 포레나 브랜드로 분양해 성공을 거두자 나머지 2개 구역도 사업 속도가 빨라져 이달 말 2차단지 분양에 이어 3차단지 공급도 가시화되고 있다.

포레나 부산덕천 1차단지(636가구)는 지난해 3월 분양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도 평균 88.2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마감됐다. 이어 계약 4일 만에 완판(완전판매)됐다.

1차단지가 분양에 성공하자 한화건설이 연이어 시공예정인 덕천2·3구역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도 나타났

다. 정비사업에선 이례적으로 빠른 2년여 만에 조합설립~관리처분인기를 받아 일반분양에 나서고 있다.

이달 말 분양예정인 포레나 부산덕천 2차는 1차 단지 바로 옆인 덕천2구역을 재건축하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795가구로 구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별로 ▲59㎡ 64가구 ▲74㎡ 93가구 등 총 157가구다.

2차단지는 덕천동 재건축사업 3개구역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시리즈 아파트는 통상 1차보다 2차 단지 청약경쟁률이 더 높은 사례가 적지 않고 대단

지 브랜드 아파트를 겨냥한 대기수요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화건설 이재호 분양소장은 "지난해 포레나 브랜드로 일반분양이 이뤄지면서 북구의 시세를 주도하는 단지로 떠올랐다"며 "3차 단지 분양도 가시권에 들면서 수요자들은 대규모 브랜드 단지의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덕천3구역은 지은 지 40년 넘은 저층 아파트를 재건축해 420여 가구의 포레나 브랜드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조합설립인기를 받은 후 2년이 채 안 되는 올해 3월말 관리처분인기를 얻어 이주 준비 중이다. 현지 부동산업계는 오는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일반 분양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숙등역에 서 한 정거장 떨어진 덕천역은 2·3호선 환승역이어서 교통편의성이 높다"며 "포레나 부산덕천 단지 인근의 만덕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연결되는 대심도 도시고속화도로와 제3만터널이 개통되면 교통여건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 종목 7건 적발

거래소, CAMS 통해 부정거래 적발
7개사 부당이득 합계 2000억 규모

한국거래소가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높은 상위(1~2)등급 위주로 종목을 분석해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종목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4월부터 거래소시장감시시스템(CAMS)을 통해 부정거래 적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기업공시, 주가추이, 매매내역, 시장조치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부정거래 혐의개

연성 정도에 따라 3단계(1~3등급)로 구분해 관리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7개사의 부당이득 합계는 2000여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1사당 평균 300억원 내외 수준이다. 대상종목들은 외부세력의 경영권 인수가 용이한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됐다. 이중 일부는 급격한 주가상승후 반락을 겪기도 했다.

거래소는 주요 혐의분석을 한 결과 경영권인수, 주가상승 테마형성, 대규모 자금조달·외부유출, 지분매도를 통

한 부당이득 획득 등 부정거래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이 수반된 복합 불공정거래 사례도 발견됐다. 전환사채(CB)와 신주인주권부사채(BW) 등을 활용해 부당이득을 극대화하거나 다수 기업간 연계를 통해 자금을 유출하는 등 부정거래 수법이 고도화됐다는 게 거래소 평가다.

일례로 A사의 경우 최대주주 등이 낮은 전환가액의 CB를 취득한 후 허위성 보도를 통해 주가급등을 유도했다. 이후 CB 전환물량을 고점에서 팔아 치워 대규모 매매차익을 챙겼다.

한국투자증권, 17일까지 50억 한도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7일까지 스텝다운형 주가연계증권(ELS) 14127회를 총 5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앤비디아(NVDA UW), 유로스탁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스텝다운 구조다.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관측하여 최초기준가의 85%(6개월, 12개월, 18개월), 80%(24개월, 30개월), 70%(36개월) 이상일 경우 연 7.4%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6번의 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투자기간 중 기초

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 시총 22.2%(연 7.4%)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의 70% 미만이라면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조건 불충족 시 발생 가능한 원금손실률은 30~100%다.

고난도 금융상품 숙련제도 시행에 따라 숙련대상 고객(개인 일반투자자)의 경우 10~11일 청약 이후 2영업일의 숙련기간을 갖는다. 오는 16일부터 17일 오전 10시까지 청약 의사를 확정해야 한다. /송태화 기자

연 7.4% 추구 스텝다운형 ELS 모집



형 및 실제 피해 사례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대처 요령 ▲금융사기 피해 예방법 등을 일반금융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안내한다.

또 KB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 마인드의 전사적 확립'을 2021년 주요 경영 목표로 채택하고, 소비자 보호 중장기 타겟 지표 선정, 핵심성과지표(KPI) 중 소비자보호 항목 대폭 확대 개편, 고객 의견 수렴을 위한 고객패널 'KB Star 메신저' 지속 운영,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문 선포를 통한 전 임직원의 소비자 보호 실천의지를 다짐하며 매분기 첫 영업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하는 등 소비자보호 최고 금융투자회사가 되고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